

# “김치 담그고, 떡도 만들고”... 농촌마을 40곳서 이색 체험

농식품부, '소규모 농촌체험 지원' 개발·시범운영 등 사업비 9억 투입 강원 양구·전남 나주 등 40곳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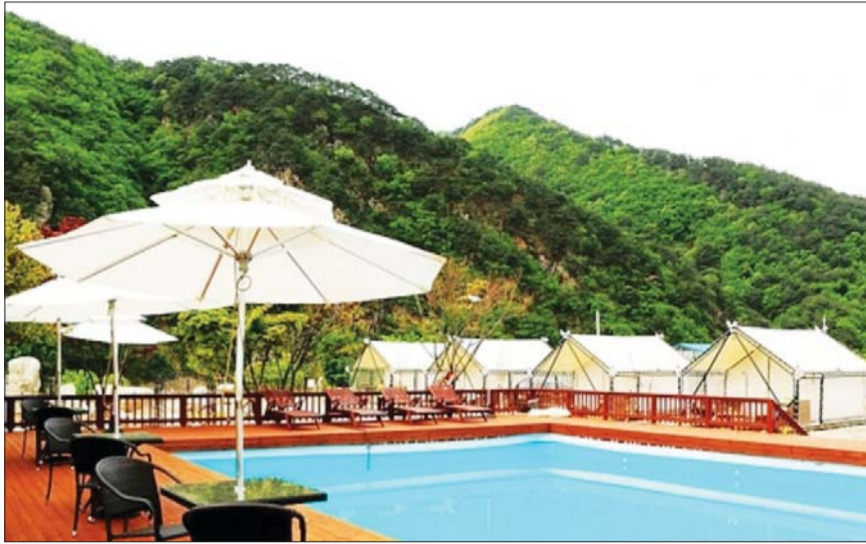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가 10일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대상 마을 4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에서 가족 단위 등의 소규모 방문객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방문객들은 막걸리 만들기를 비롯해 김치 담그기, 떡 제조 등을 체험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81개 마을을 대상으로 서면·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40곳을 선정했다.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시범운영, 홍보 및 마케팅에 필요한 사업비 총 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각 마을은 농촌관광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최근 관광 추세에 적합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올여름 선보일 예정이다. 유형으로는 식도락 미식탐험형과 워케이션형, 탄소중립 및 친환경형, 다세대 가족형, 반려동물형 등이 있다.

이들 40곳 중 강원 양구에 위치한 국토정중앙배꼽체험휴양마을은 ▲반려견과 함께하는 펫마켓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희망하고 있다. 경기 여주의 백



강원 인제에 자리한 한 글렘핑장.

/뉴시스·한국관광공사

화원농촌체험휴양마을은 ▲가족단위의 비숙박 피크닉 체험을, 충남 아산의 강당골마을은 ▲트리 클라이밍 체험 후 식도락 여행을 각각 추진 중이다.

또 전남 나주의 반남권역은 ▲자미산 활만들고 마한 탐험체험 개발을, 경북 문경 궁터마을은 ▲콩으로 만드는 고기, 식빵, 파스타 체험을 추진한다. 이 밖에 경남 김해 한림알로이 ▲원에, 미용, 미식이 어우러지는 체험을 비롯해 대전 계족산의 ▲반려견과 함께하는 치유농장 체험, 제주 서귀포 하례1리의 ▲서걸서 및 야간탐방 체험, 경기 이천 부래미마을의 ▲피크닉과 함께하는 아로마 족욕 체험 등이 있다.

이 같은 사업 목적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관광 트렌드에 따른 소그룹 단위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가능한 잠재력 있는 콘텐츠 발굴·확산”이라고 설명했다. 지원규모는 개소당 국비 800만 원이다.

개발 가능한 소규모 농촌관광 콘텐트를 가진 농촌관광 경영체와 전문 컨설팅 기관 매칭을 통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을 목표로 한다. 올해 연말에는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 장관상 1점을 시상할 계획이다.

김고은 농식품부 농촌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매력적인 농촌체험 상품을 발굴해 도시민의 여행수요를 충족시키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韓 세계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 성능 검증

환경과학원-유럽우주국 업무협약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유럽 우주국(ESA)과 환경위성의 검증, 연구 협력 및 인적자원 교류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식은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소재 유럽우주국 지구관측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환경위성의 검증, 연구 협력 및 인적자원 교류 등에 대한 협약이다.

양측은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GEMS)과 유럽 우주국이 운영 중인 저궤도 환경위성 트로포미(TROPOMI)의 자료를 상호 교환하게 된다. 또 위성자료 검증을 위한 지상 자료 교환 및 협력, 인적 자원 교류 등을 추진한다.

유럽우주국은 전 지구의 육상, 해양 및 대기질 관측을 위해 2017년에 발사된 저궤도 환경위성인 트로포미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트로포미 위성과 2026년 발사 예정인 세계 세 번째 정지궤도 환경위성 센티넬

-4호 위성을 이용해 전 지구적 대기오염물질의 발생 및 이동에 관한 관측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위성 활용 분야 국제 공동 연구를 위해 미항공우주국(NASA), 독일우주국(DLR), 막스플랑크화학연구소(MPIC) 등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를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022년 10월 유럽우주국에서 주관한 페가소스(PEGASOS) 활동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페가소스 활동은 위성 간 상호 비교 및 지상 관측을 통한 검증 연구를 가리킨다.

김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위성 연구기관인 유럽우주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환경위성 기반의 연구 범위를 확장해 북반구 대기질에 관한 공동 연구 협력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기환경 및 위성 분야 전문가 교류도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 탄저병 등에 강한 수박 12개 품종 개발

농촌청, 원예특작과학원서 평가회

농촌진흥청이 10일 탄저병과 흰가루병 등에 저항성을 보이는 육종용 수박 12종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평가회를 오는 11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육종용 수박은 민간이나 종묘 회사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품종을 만들 때 활용하는 수박을 말한다. 우수한 육종용 수박이 다양해질수록 소비자와 농업 현장에서 원하는 수박을 만들 확률도 그만큼 높아진다.

이번에 개발한 육종용 수박은 국내 외에서 수집한 유전자원 가운데 농진청이 5년간 병 저항성 평가와 교배 등 육종 소재화를 통해 유전적 안정성과 고유 특성이 잘 유지되는지를 검증한

것이다.

‘FE 69’ 계통은 광합성 효율을 떨어뜨리는 병인 흰가루병 발생지수가 1점대로 낮다. 속살이 빨간색을 띠는 등 야생 수박보다 식용 수박 특성이 있어 육종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농진청은 기대했다.

줄기가 갈라지고 부패하는 덩굴쪼김병 발생지수가 1점대로 낮은 ‘FE 49’ 계통은 당도가 10브릭스(Brix)로 비교적 높다. 품질이 우수한 병 저항성 품종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평가회에는 이들 수박 외에도 탄저병 저항성 수박 1점, 흰가루병 저항성 수박 6점, 덩굴쪼김병 저항성 수박 3점을 만나볼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 스마트농업·질병 등 R&D 민간전문가 모집

농식품부, ‘R&D 공동기획단’ 운영 투자영역 재편·국제협력 확대 등 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월 마련한 ‘농식품 연구개발(R&D) 혁신방안’과 관련해 농식품부·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사업을 함께 기획할 공동기획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농업, 동물 및 질병 분야 연구개발사업 기획을 각각 총괄 관리할 민간전문가를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방안은 연구개발 추진체계 개편을 비롯해 투자영역 재편, 국제협력 확대, 혁신·도전형 연구 확대 등이다.

공개 모집하는 민간 분과위원장은



전북 전주 소재 농촌진흥청.

/뉴시스

정부, 민간 전문가 15명 내외로 구성된 분과위원들과 함께 ▲중장기 전략 및 기술개발 로드맵 마련 ▲부·청 연구개발사업 조정 ▲신규사업·과제 발굴 및 기획 ▲사업별 예산 배분 등

의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분야 연구사업 기획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업을 미래지향적 스마트농업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농식품 연구개발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모집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모집 기간은 이달 11~26일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임용된다. 공동기획단 분과위원장 공개모집 일정 및 지원서 접수 방법 등 상세 내용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www.ipet.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 신보 “中企, 기술사업화 등 성장 지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과 MOU “답사이언스 성장 생태계 조성”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7일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COMPA)과 ‘과학기술 연구개발(R&D)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양 기관은 협력체계를 구축해 우수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진행한 중소기업

이 성공적인 기술사업화를 이루고,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COMPA는 신보에 과학기술 R&D 성공기업을 추천하고, 신보는 추천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및 투자유치 프로그램 등의 맞춤형 성장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과학기술 R&D 수요

기업을 공동으로 발굴해 각 기관 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등 첨단과학기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한 과학기술이 R&D 결과물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을 선도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과학기술 R&D기업을 적극 지원해 고난도 신기술분야의 답사이언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한국콜마 2세 ‘부당지원’ 에치엔지에 과징금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5.1억 부과

화장품 제조 중견기업 한국콜마 계열사가 동일한 2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한국콜마 소속 계열회사 에치엔지가 구 케이비랩에 자사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1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치엔지는 한국콜마 소속 화장품 OEM·ODM 전문회사로,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

(LabNo)’ 판매를 위해 2016년 8월 100% 자회사로 설립한 케이비랩에 회사 설립시부터 2020년 5월까지, 연도별 최대 15명의 임직원(인건비 총 9억400만원)을 파견시키는 방식으로 케이비랩을 지원했다.

공정위는 케이비랩이 동일한 2세 회사라는 이유로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없이 확보했고, 이를 통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